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남영[†]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4년 7월 24일 접수: 2024년 8월 27일 수정: 2024년 8월 28일 채택)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Drinking-Related Knowledge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Nam 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Received July 24, 2024; Revised August 27, 2024; Accepted August 28, 2024)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및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도 소재 J 대학에 재학하는 간호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연구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수의 특성에 따라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 관련 지식($r=.21, p=.004$)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r=-.21, p=.005$)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beta=-.17, p=.016$), 음주 관련 지식($\beta=.21, p=.003$), 흡연 상태($\beta=.19, p=.008$)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8.30, p<.001$), 설명력은 11.0%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주 관련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프로그램에 포함한다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drinking related knowledg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nursing student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0, 2023 to October 10, 2023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from 187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E-mail: aqua29@jwu.ac.kr)

enrolled in J University in C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using the SPSS/WIN 28.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nursing student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rinking-related knowledge ($r=.21$, $p=.004$)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r=-.21$, $p=.005$). The factors affecting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were identified as academic stress ($\beta=-.17$, $p=.016$), drinking related knowledge ($\beta=.21$, $p=.003$), and smoking status ($\beta=.19$, $p=.008$), and the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8.30$,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1.0%.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gram to reduce academic stress and increase drinking-related knowledge in order to improve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including smoking cessation strategies for college students in the program can help increase their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Keywords : Academic Stress,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성인기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시기와 다르게 법적, 사회적으로 음주가 허용됨에 따라 부모나 사회의 통제 없이 음주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대학은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학교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음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대학이라는 환경이 음주율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2]. 2023년 보고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대의 음주율은 62.2%로 보고되었으며 [3],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을 나타내는 연간음주율이 94.4%로 나타나 대학생의 음주율은 상당히 높았다[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실태를 보고한 연구에서도 음주율은 91.4%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다[5].

대학생의 지나친 음주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감소하여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수업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면서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아가 건강과 대인관계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6,7]. 이 시기에 음주문화가 고착되면 이는 성인 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대학생이 올바른 음주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음주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8]. 따라서 미래에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대상자의 음주와 관련된 신

체적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생의 음주 행위와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제시되고 있다[9]. 대학생들은 음주를 통해 서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술자리 분위기에 이끌려서 음주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 시기 원하지 않는 음주를 효과적으로 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음주를 거절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신념을 의미하며,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술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다[10]. 즉,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음주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은 술을 마시는 환경에서 술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음주 횟수가 늘어나거나 음주량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아질 수 있다[11,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은 학습, 교우 관계, 취업 준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13],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 이외에도 1학년부턴 전공교과목 수업이 시작되어 학습량이 많아 시험과 성적에 대한 부담

감이 높으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적 특성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대학생이 인식한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은 폭음과 고위험 음주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 국내에서 1인 가구 음주 현황에 대한 10편의 연구를 체계적 고찰한 연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는 대상자의 음주, 폭음, 문제 음주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16].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아 음주 관련 문제에 노출될 경우가 더 많았다는 보고도 있으므로[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생의 경우 음주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음주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적절한 음주를 할 수 있도록 음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18]. 지식은 정보를 제공받아 얻을 수 있으며, 개인은 습득한 정보를 통해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지식이 습득되면 태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태도가 변화하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므로[19], 간호대학생의 음주 관련 지식이 음주에 대한 신념인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취업스트레스[17], 학업스트레스[17], 음주 문제[17], 우울[20], 대학 음주문화[20], 음주행위[9]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음주량과 음주 빈도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5]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 교육을 진행한 후 음주 관련 지식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연구[19,21]가 있었지만,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즉, 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지속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

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음주하기를 원치 않는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C도 소재 J 대학에 재학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표본수는 G power 3.1.9.7 program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유의수준 α 값은 .05, 검정력(1-B)은 .95, 효과 크기 .15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측 변수는 10개(성별, 학년, 나이,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건강 상태, 흡연 여부, 주로 술을 마시는 요일, 음주 횟수, 처음 술을 마신 동기,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로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선택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72명이었다. 탈락률 10%를 예측하여 총 190명을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며, 이 중 설문 응답을 완성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3부는 제외하였으며, 최종 18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도구는 Park과 Kang [2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측정 도구 중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평균 점수 범위는 0점부터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Kang [22]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2.3.2. 음주 관련 지식

음주 관련 지식 도구는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에서 제공하는 도구[23]를 Tak 등[24]이 번안한 음주 관련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정답' 1점, '오답' 0점이며, 도구의 총점 범위는 0점부터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지식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k 등 [24]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인 KR-20값은 .65였으며, 본 연구에서 KR-20값은 .67이었다.

2.3.3.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도구는 Aas 등[25]이 개발한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를 Cho[26]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정도를 측정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평균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26]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23년 9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대면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 설문 결과의 사용 등을 설명하고 연구 결과는 비밀 유지와 익명 보장함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작성은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은 불편감을 느낄 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총 126명에게

설문이 배부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여 총 123부가 수집되었다.

두 번째로 대면 설문조사가 어려운 재학생의 경우 비대면으로 구글 폼을 만들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링크를 공유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구글 폼에서도 연구대상자의 익명 보장과 비밀 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 중간에라도 불편감을 느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총 64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성실히 응답하여 64부 설문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했다.
-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차이

본 연구대상자는 여학생(135명, 72.2%)이 남학생(52명, 27.8%)보다 많았으며, 참여 학생의 학년은 1학년(64명, 34.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학년(58명, 31.0%), 2학년(36명, 19.3%), 4학년(29명, 15.5%) 순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1세~23세가 93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질문하는 문항은 91명(48.7%)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흡연자가 142명(75.9%)으로 흡연자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술을 마시는 요일을 묻는 문항

에는 ‘아무때나’ 마신다고 응답한 학생이 104명 (55.6%)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횟수가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에는 ‘한 달에 1회~4회’ 마신다고 응답한 학생이 89명(47.6%)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처음 술을 마신 동기를 묻는 문항에는 ‘호기심’에 응답한 학생이 63명 (33.7%)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참여자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1.46, p=.146$), 학년($F=2.41, p=.069$), 나이($F=2.41, p=.092$), 본인이 느끼는 건강 상태($F=1.90, p=.153$), 주로 술을 마시는 요일($F=2.39, p=.095$), 처음

술을 마신 동기($F=1.26, p=.291$)에 따른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 중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t=3.04, p=.003$), 지난 1년간 음주한 빈도를 묻는 항목($F=7.2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을 한 결과 ‘1년에 1회~5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그룹이 ‘한 달에 1회~4회’ 마신다는 그룹과 ‘1주일에 1회 이상’ 마신다는 그룹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논문에서도 비

Table 1. Differences i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N=187)

Variables	Categories	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M ± SD	t or F (p)
Gender	Male	52(27.8)	3.99±0.80	1.46 (.146)
	Female	135(72.2)	3.78±0.88	
Grade	1 st	64(34.2)	3.86±0.85	2.41 (.069)
	2 nd	36(19.3)	4.14±0.72	
	3 rd	58(31.0)	3.66±0.86	
	4 th	29(15.5)	3.79±0.99	
Age (year)	≤20	81(43.3)	4.00±0.81	2.41 (.092)
	21~23	93(49.7)	3.72±0.89	
	24≥	13(7.0)	3.71±0.91	
Health condition	Good	75(40.1)	3.96±0.85	1.90 (.153)
	Moderate	91(48.7)	3.81±0.86	
	Bad	21(11.2)	3.56±0.89	
Smoking Status	Nonsmoker	142(75.9)	3.95±0.84	3.04 (.003)
	Current smoker	45(24.1)	3.51±0.86	
Day of drinking	Friday	34(18.2)	3.74±0.80	2.39 (.095)
	Weekends	49(26.2)	4.07±0.75	
	Anytime	104(55.6)	3.77±0.92	
Frequency of drinking	1~5 times/year ^a	34(18.2)	4.27±0.70	7.22 (<.001) a>c,d*
	6~11 times/year ^b	42(22.5)	4.00±0.82	
	1-4 times/month ^c	89(47.5)	3.74±0.81	
	Over 1 time/week ^d	22(11.8)	3.30±1.04	
First motivation to drink	Friend's recommendation	52(27.8)	3.71±0.95	1.26 (.291)
	Family recommendation	36(19.2)	3.90±0.71	
	Curiosity	63(33.7)	3.79±0.90	
	Other reasons	36(19.3)	4.05±0.79	

* Scheffé test

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7]. 흡연과 음주는 각각 분리하여도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 둘을 합한 것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27]. 따라서 비흡연자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흡연자보다 원하지 않는 음주 상황에서 음주를 더 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음주 실례를 보고한 Kim[5]의 연구에서 음주 빈도가 '한 달에 1번 미만'인 그룹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마시는 그룹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더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특히 한 달에 음주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낮았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음주 빈도가 낮은 그룹에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즉, 음주 빈도가 낮을수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본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특히 Kim[5]의 연구에서는 음주량과 음주 문제 경험 유무에 따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변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음주 관련 특성을 투입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및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5점 만점에 2.32점이었고, 음주 관련 지식은 10점 만점에 5.30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다(Table 2).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Choi[29]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48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교과목 이외에도 임상실습과 관련된 추가 교육이나 과제 등이 부여됨으로써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

으나[30],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전공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음주 관련 지식 정도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19]의 연구에서 중재를 진행하기 전 실험군 5.09점, 대조군 5.76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다. 음주 관련 지식은 시대의 변화와 국가 정책에 따라 지속해서 교육이 시행될 때 음주 관련 지식이 유지될 수 있다[21].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음주 관련 지식이 중간 정도를 보였지만 최근 국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음주 관리 사업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추가 교육하여 음주 관련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84점으로 나타났는데 여대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정도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3.15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으며[2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17]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5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기 위해 음주할 때도 있지만 음주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놀이 문화이거나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0], 여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Kim[20]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없었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r=-.205, p=.005$)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음주 관련 지식($r=.210, p=.004$)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2. The Degree of Academic stress, Drinking related Knowledg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N=187)

Variables	Min	Max	Mean	SD
Academic stress	0	4.67	2.32	1.15
Drinking related Knowledge	0	10.00	5.30	1.69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00	5.00	3.84	0.86

(Table 3). 학업스트레스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0]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Woo 등[17]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심한 그룹이 학업스트레스 심하지 않은 그룹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점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음주 관련 지식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역시 선행연구가 거의 없지만 음주 관련 지식을 교육받은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교육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19], 음주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올라간다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음주 관련 지식수준이 높아진다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음주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학업스트레스 관리와 음주 관련 지식 전달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3.4.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흡연 관련 변수와 지난 1년간 음주 횟수를 묻는 변수는 명목변수이므로 더미 처리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학업스트레스와 음주 관련 지식을 투입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ee와 Noh[31]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기본가정과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25로 확인되었고 독립변수 간에 자기 상관성은 없었다. 공차 한계는 0.50에서 0.97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인자는 1.01에서 1.91의 범위를 보여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beta=-.17, p=.016$), 음주 관련 지식($\beta=.21, p=.003$), 흡연 유무($\beta=.19, p=.008$)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8.30, p<.001$), 설명력은 11.0%였다(Table 4).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Woo[17]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음주통제 자기효능감을 결합하여 적절음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데 그 결과,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적절음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음주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음주를 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은 학업 생활이나 진로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 시기와는 다르게 스스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본인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져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음주량도 증가하게 된다[17]. 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 음주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대학생은 문제 음주를 경험할 가능성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Drinking related Knowledg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N=187)

Variables	Academic stress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r(p)		
Academic stress	1		
Drinking related Knowledge	-.02 (.842)	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21 (.005)	.21 (.004)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N=18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28	.27		12.40	<.001
Smoking(1=No)	.38	.14	.19	2.68	.008
Drinking related Knowledge	.11	.04	.21	2.98	.003
Academic stress	-.13	.05	-.17	-2.42	.016
R ² =.12 adj R ² =.11 F(p)=8.30(<.001)					

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안을 학과 차원에서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음주 관련 지식은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Kim[19]는 음주 관련 지식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음주량이 많아지는 등 음주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음주 행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음주 관련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나 그룹별 토의, 가상 음주 체험 등을 제공하여 정보전달을 하였을 때 음주거절 효능감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19], 추후 이러한 내용을 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비흡연자일수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흡연상태는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흡연과 음주는 서로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니코틴은 알코올로 인한 흥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32]. 또한 흡연은 음주 문제와 관련이 있음이 선행연구[33]를 통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는 음주거절 효능감이 문제 음주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방안이 대학생이 금연할 방안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음주가 시작되어 문제 음주로 진행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음

주거절 자기효능감 향상에 더 효과적이므로[19]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적용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ei 등[11]의 연구에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음주량과 음주 빈도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음주 빈도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었지만, 영향 요인은 아니었다. 따라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던 흡연상태와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음주문화는 과도한 음주도 용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신입생 때 경험한 음주문화를 후배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에게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음주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함양하는 것은 필요하다[20]. 음주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생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학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11%에 그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는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대학생은 음주를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의 권유나 분위기로 인해 음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폭음이나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음주는 보건 의료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음주 관련 지식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그리고 흡연 유무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음주 관련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대학생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계획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음주는 개인 차원을 넘어 대학과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학과 사회가 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과 음주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음주 관련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 E. King, A. G. La Valley, "Even with the Professors it's Expected: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Discussion of Campus Drinking Culture", *Pennsylvania Communication Annual*, Vol.75, No.2, pp. 71-93, (2019).
2. C. Andersson, K. O. Johnsson, M. Berglund, A. Öjehagen, "Alcohol Involvement in Swedish University Freshmen Related to Gender, Age, Serious Relationship and Family History of Alcohol Problems", *Alcohol & Alcoholism*, Vol.42, No.5, pp. 448-455, (2007).
<https://doi.org/10.1093/alcalc/agm008>
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Statistics of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
4. The Kor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The Actual Condition of Drinking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2010).
5. H. N. Kim, *The Status of Alcohol Use and Antialcoholic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dang University, (2016).
6. J. M. Cardigan, M. P. Martens, K. C. Herman,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Drinking Motives among Heavy Drinki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Vol.51, pp. 100-105, (2015).
<https://doi.org/10.1016/j.addbeh.2015.07.029>
7. G. Park, S. H. Choi,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ng Reducing Alcohol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Outcome Expectancy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of Wome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9, pp. 364-373, (2015).
<https://doi.org/10.5392/JKCA.2015.15.09.364>
8. N. H. Kim, "Impacts of Drinking Culture and Drinking Motives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pp. 2817-2828, (2021).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6.2817>
9. T. Jenzer, G. A. Egerton, J. P. Read,

- “Learning from Drinking Experiences in College: A Test of Reciprocal Determinism with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Vol.35, No.1, pp. 85-92, (2021).
<https://doi.org/10.1037/adb0000675>
10. T. P. S. Oei, A. Morawska, “A Cognitive Model of Binge Drinking: The Influenc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ddictive Behavior*, Vol.29, pp. 159-179, (2004).
[https://doi.org/10.1016/S0306-4603\(03\)00076-5](https://doi.org/10.1016/S0306-4603(03)00076-5)
 11. T. P. Oei, P. A. Hasking, R. M. Young,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RSEQ-R): A New Factor Structure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78, No.3, pp. 297-309, (2005).
<https://doi.org/doi.org/10.1016/j.drugalcdep.2004.11.010>
 12. A. Skutle,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xpectancies, Severity of Alcohol Abuse, an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Drinking”, *Addictive Behaviors*, Vol.24, No.1, pp. 87-98, (1999).
[https://doi.org/10.1016/S0306-4603\(98\)00007-0](https://doi.org/10.1016/S0306-4603(98)00007-0)
 13. I. S. Kwon, Y. J. Kwon, G. H. Kim, T. L. Kim, M. You, *Growth, Development and Health*. Soomoonsa, pp. 255-270, (2017).
 14. E. Y. Kim,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6, pp. 783-791, (2022).
<https://doi.org/10.12925/jkocs.2022.39.6.783>
 15. J. H. Kim, K. H. Park, “Relation of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s in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4, No.4, pp. 1036-1045, (2017).
<https://doi.org/10.12925/jkocs.2017.34.4.1036>
 16. J. H. Bae, S. H. Jang, E. A. Cho, J. S. Choo, S. H. Eom, A. Y. Lee, S. R. Jang,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on Drinking Behavio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Conference of the Korean Alcoholic Science Society*, Vol.2022 No.11, pp. 92-93, (2022).
 17. K. Woo, Y-J. Jee, “Factors Influencing the Self-efficacy for Moderate Drink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7, No.8, pp. 231-240, (2021).
<https://doi.org/10.47116/apjcri.2021.08.21>
 18. M. S. Choi, M. Y. Im, Y. M. Yoon, “A Predictive Model Comparison by Sex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2, No.1. pp. 77-88, (2002).
 19. J. H. Kim, *Effects of the Problem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8).
 20. H. Ki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21. Y-J. Lee, S-H. Lee, S-J. Lee, “The Effects of Alcohol Harm Prevention Education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0, pp. 505-513,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10.505>
 22. J. H. Park, S. W. Kang,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aily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 423-432,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5.423>
 23.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 Alcoholism, *NIH Curriculum Supplement*

- Series(Grade 7-8): Understanding Alcohol: Investigations into Biology and Behavior.* NIH Publication No.04-4991, pp. 67. (2003).
24. Y. R. Tak, E. H. Yun, J. Y. An, "Alcohol Experience, Alcohol Knowledge, and Alcohol Expectancy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7, No.1, pp. 35-43, (2007).
<https://doi.org/doi.org/10.4040/jkan.2007.37.1.35>
 25. H. Aas, K. I. Klepp, J. C. Laberg, L. E. Aarø,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56, No.3, pp. 293-9, (1995).
<https://doi.org/10.15288/jsa.1995.56.293>
 26. H. Cho,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0).
 27. D. Jonathan, M. N. Kathryn, D. B. Jason, "Changing Pattern of Tobacco and Alcohol Co-use by Gender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Research*, Vol.28, No.22, pp. 637-648, (2013).
<https://doi.org/10.4054/demres.2013.28.22>
 28. M. S. Kim, M. H. Kim, "Factors Influencing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3, No.1, pp. 50-60, (2009).
<https://doi.org/10.5932/JKPHN.2009.23.1.050>
 29. K. S. Choi, "A Study on Academic Stress, Health Behavior, and Drinking Pattern of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y of Basic Medicine & Health Science*, Vol.10, No.1, pp. 6-15, (2017).
 30. W. J. Choi, H. J. Kim, C. Y. Kwon, E. J. Kim, K. H. Son, H. A. Yoo, Y. J. Heo, M. Kwon, "The Influence of Stress in Taking Clinical Experience and Academic Stress on Drinking Problem of Nursing Student", *Theses Collection*, Vol.33, pp. 301-310, (2019).
 31. J. H. Lee, H. J. Noh, *Analysis of Nursing and Health Statistics Using SPSS/Amos*. Soomoonsa, (2013).
 32. J. Jeong,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Young and Middle-aged Men and Women",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33, No.1, pp. 105-133, (2022).
<https://doi.org/10.16881/jss.2022.01.33.1.105>
 33. E. K. Lee, O. S. Kim, J. Y. Hong,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Problem Drinking in Male Workers", *Asian Nursing Research*, Vol.9, No.2, pp. 132-137, (2015).
<https://doi.org/10.1016/j.anr.2015.04.002>
 34. P. J. Ehret, T. M. Ghaidarov, J. W. LaBrie, "Can You Say No? Examin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y Use on Alcohol Outcomes", *Addictive Behaviors*, Vol.38, No.4, pp. 1898-1904, (2013).
<https://doi.org/10.1016/j.addbeh.2012.12.022>